

‘한복 산업 구심점’ 전남한복문화창작소 보성서 개소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3년간 10억 투입
한복 생산·전시·판매 문화 향유 확대
전시장·실습교육실·복합문화공간 구성
디자인 개발·교육 등 대중화 선도 목표

한국 한복 문화와 산업의 구심점이 될 ‘전남한복문화창작소’가 보성군 복내면 천연염색공예관에 새롭게 조성돼 지난달 29일 문을 열었다. 보성군은 한복의 전통문화를 지역에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3일 보성군에 따르면 ‘전남한복문화창작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지역 한복문화창작소’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됐다.

이 사업은 한복 생산, 전시, 판매, 체험 기능 등을 갖춘 한복 문화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고 한복 문화 확산 및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3년간 1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천연염색 ‘숨’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한복 전시장, 실습교육실, 아카이브실, 미디어 영상실, 한복복합문화공간 등이 구성된 한복 디자인 개발과 한복 교육 등을 선도



지난달 29일 전남한복문화창작소가 보성군 복내면 일원에 문을 열었다.

보성군 제공

하는 한복 대중화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은 박우욱 전남도 문화융성국장, 서형빈 보성부군수, 이동현·김재철 전남도의원,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계자와 지역 한복인 등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전남한복문화창작소 영상, 기념사 및 축하, 테이프 커팅 퍼포먼스, 한복 패션쇼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전남한복문화창작소에서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과 한복 문화 사업 등을 추진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한복의 매력을 알리는데 힘을 기울인다.

서형빈 부군수는 “전남한복문화창작소가 한복 문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한복의 전통문화를 지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순천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 조사관 상담

순천시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순천시 중앙시장길 31)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불편 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천시 감사실(061-749-5577)을 통해 사전 상담 예약을 접수할 수 있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국민신문고에는 권익위 조사관과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해 행정, 교육, 보훈, 세무, 복지, 노동, 건축 등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지적 분쟁, 신용 회복, 민·형사 생활법률 등 생활 속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직접 소통하고 권익 보호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LG화학·여수광양항만공사, 소외 청소년 치과 치료 지원

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5년째 지속 670명 혜택

LG화학 여수공장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일 여수시청에서 관내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를 지원하는 ‘꿈꾸라, 희망 스마일’ 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이현규 LG화학 주재임원,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김종진 쌍봉종합사회복

합사·여수시 치과의사회·여수쌍봉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참석했다. ‘꿈꾸라, 희망 스마일’은 의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성장기 치아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8~19세)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과 치료 중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해당 지원 사업은 지난 2020년 7월, 여수시·LG화학 여수공장·여수광양항만공사·여수시 치과의사회·여수쌍봉종합사

회복지관 등 5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약 130명의 청소년을 후원 중이다. 올해 기준 총 670명이 혜택을 받았다.

여수시 치과의사회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해 프로그램을 진행한 덕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치과 치료를 지속 지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화학 이현규 주재임원은 “여수시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적절한 치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후원 프로그램 이름처럼 아이들이 희망 가득한 미소를 띠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과일청 체험 ‘티 테라피’ 순천만국가정원 테라피가든

순천만국가정원 테라피가든에서 겨울을 맞아 향기로운 휴식 한 모금, 티 테라피’라는 테마로 관람객들에게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테라피가든에서 특별 프로그램인 ‘티 테라피’를 운영한다.

‘티 테라피’는 면역력 향상과 감기 예방에 좋은 백향과와 피로 해소와 피부미용에 좋은 오렌지로 나만의 과일청을 만들고 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차를 시음하는 체험이다.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각각 백향과정, 오렌지청으로 진행되고 용량은 300ml, 체험료는 1인 1만원이다. 네이버에서 ‘순천만국가정원 테라피가든’을 검색하면 예약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12월 차가운 날씨 속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티 테라피와 함께 향기로운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문을 연 테라피가든은 향수, 물은, 디퓨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계절마다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험객들의 재방문율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양시 봉강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발

광양시 봉강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달 27일과 29일 양일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귀농·귀촌 새내기 영농체험’과 ‘배려계층 겨울나기 음식 나눔 봉사’를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지난달 27일 주민 40여명은 봉강면 부저리에 소재한 송화농원을 방문해 참표고버섯 종균 넣는 법, 생육환경, 시설관리 등 재배 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듣고 버섯 수확 체험에 참여해 버섯 재배 관련 기초지식을 쌓았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봉강면 비봉복지센터에서 겨울 건강보양식 장어탕과 무생채 나물, 파래 자반 무침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배려계층 50가구에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다.

김영남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장은 “다가오는 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한다. 어려운 이웃들이 정성 가득한 음식을 드시고 원기를 회복해 따뜻하고 무탈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지난달 27일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송화농원에서 주민들이 참표고버섯 수확 체험에 참여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고흥군, ‘천경자 100주년’ 특별 여행상품 출시

코레일·협력여행사 공동 기획

고흥군이 코레일 광주전남본부 및 협력여행사 5개사와 함께 천경자 100주년 기념 특별여행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특별 여행상품은 고흥군과 코레일 및 협력여행사와 공동 기획해 천경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겨울철 고흥 여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메인 콘텐츠인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은 천경자 화백의 채색화, 드로잉, 영상, 사진, 친필 편지 등 다양한 작품과 자료를 통해 천경자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또 주요 코스로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4개 섬과 5개의 다리로 이어진 백리섬섬

길 드라이브,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소록도, 고흥여행의 중심지인 녹동항과 녹동바다정원, 분청사기와 고흥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고흥전통시장의 생선숯불구이, 국내 최장 연륙 인도교 우도 레인보우교 등이 포함된다. 특별여행상품은 12월 한 달간 진행되며 고흥군의 여행비용 지원과 코레일 열차표 할인 등이 적용돼 최대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 예약은 △아름여행사(www.arumtr.co.kr) △보군여행사(www.railtel.co.kr) △퍼시즈투어(www.78ktx.co.kr) △청송여행사(www.7788tour.kr) △민음여행사(www.trusttour.co.kr) 등 5개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장흥군, 송기숙 작가 ‘녹두꽃 음악회’ 개최

내일부터 7일까지 인문학 강연 등

장흥군은 5일부터 7일까지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행동하는 지식인’ 송기숙 작가의 ‘녹두꽃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 작가는 1978년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전남대 10명의 교수와 발표하면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듬해 제헌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위반’ 죄명으로 징역 10년을 받았다. 이듬해 형집행정지로 출소했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며 지난 2021년 12월 5일 유명을 달리했다.

수감 중 집필한 12권 분량의 ‘녹두장군’은 송 작가의 대표적인 저서로 꼽힌다.

올해 ‘녹두꽃 음악회’는 민주화를 위해 꾸준히 행동해 왔던 송 작가의 저항정신을 후대에 알리는 문화행사로 개최된다.

5일에는 ‘행동하는 지식인’ 송기숙의 저항정신을 주제로 조은숙 교수의 인문학 강의와 동학농민혁명사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성장군 이소사를 모티브로 한 ‘광녀’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6일에는 심리학 이야기를 담은 손정필 교수의 인문학 강의와 장흥(청년)예술인 공연, 7일에는 박맹수 총장의 동학농민혁명 강의와 싱어송라이터 조성일 공연 등이 차례롭게 펼쳐진다.

장흥=김전환 기자